

 보건복지부 11월 21일(목) 석간(11.21 06:00 이후 보도)		<h1>보도자료</h1>	
배 포 일	11월 20일 / (총 23 매)	담당부서	정책통계담당관실
복 지 부	신 승 일 과장	전 화	02-2023-7162
보 사 연	장 영 식 연구위원		-
연 세 대	정 형 선 교수		-
심 평 원	김 선 민 단장		-

한눈에 보는 국민의 보건의료지표

- “OECD Health at Glance 2013” 주요지표 분석 -

- 보건복지부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수록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 통계와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건강상태, 주요의료인력, 보건의료의 질(質)과 비용 등 보건의료 전반의 회원국별 비교 통계를 수록한 「OECD Health at a Glance 2013」을 회원국에 배포하였다.
 - OECD는 현재와 미래에 관리가 필요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를 선정하고, 명확한 개념정의와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전문기관(전문가)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을 OECD 사무국과 전문가 회의 등 기본적인 검증을 거쳐 2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 동 자료는 객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포괄범위가 방대하고,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인용률이 매우 높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2011년 기준으로 작성·발표된 이번 자료를 발간하면서 OECD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에 약 1/3의 회원국에서 보건의료비가 감소된 현황에 주목하고,

- 회원국들이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 2009년 이후 그리스(△11.1%), 아일랜드(△6.6%)는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그 외 국가에서도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함
 - * 증가율이 더 커진 국가는 이스라엘과 일본 2개국임
 - *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9.3%, 2009~2011년 6.3%임
- OECD는 보건의료비가 약제비, 인건비와 예방사업 분야에서 주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 각국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예산삭감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감소와 환자부담분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 조치는 의료접근성을 위협하고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OECD는 회원국의 평균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섰고, 당뇨병·치매 등 만성질환의 증가, 복제약 시장점유율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주목할 만 하다고 발표하였다.
- 다음은 「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수록된 통계(지표) 중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발췌하여 **관련국가의 통계와 비교·분석을 한 자료**로서 본 보도자료 전체가 OECD 홈페이지에도 게재(링크)되어 있다.(www.oecd.org/health/healthataglance)
- OECD는 위와 같은 보건통계를 회원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생산·발표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제출요구 세부항목 921개 중 금년에는 772개(약 84%)를 제출한 바 있는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영식박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선민단장), 연세대학교(정형선교수),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한 기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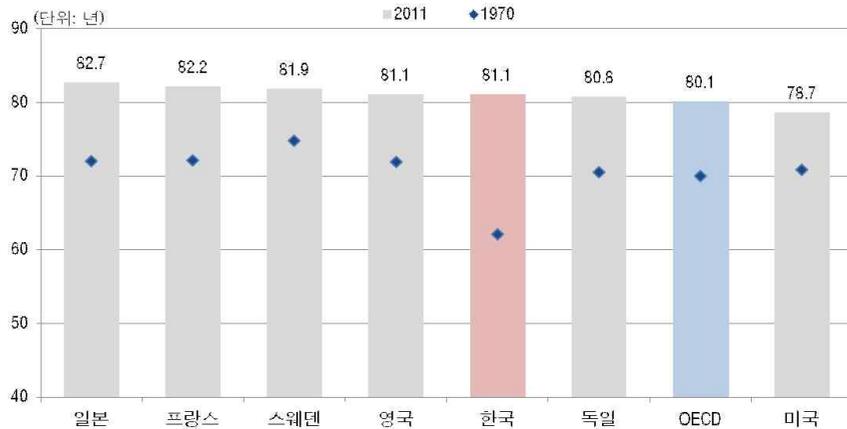
- OECD 보건통계를 해석·활용시 유의할 점은 특정 항목만으로 모든 보건수준을 진단·평가해서는 곤란하고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찰·판단할 필요가 있다.

* 보건의료제도의 유형과 구축 역사, 지불제도 등 보건의료 환경 이외에도 경제적 수준, 문화적 차이, 도시화 정도 등에 따라 개별 영역(통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양태로 나타남에 유의

- (기대수명과 주요질환) 한국의 기대수명은 '11년 81.1년(OECD 평균 80.1년)*이다. 특히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84.5년(82.8년)이고, 남성의 기대수명은 77.7년(77.3년)으로 OECD 평균보다 길다.

* 이하 ()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의미함.

< OECD 주요 국가의 기대수명 >



-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 명당 3.0명(4.1명)으로 1970년대 OECD 평균(29.4%)을 크게 상회한 것과 비교하면 영아사망률이 크게 개선되었다.
- (암) 모든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290.0명(277.7명), 여성 119.9명(165.8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남성은 높게, 여성은 낮게 나타났다.

-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42.3명(122.2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적으며, 뇌혈관질환 79.7명(69.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 (당뇨) 0-14세 아동의 1형 당뇨병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명(17.2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 20-79세 성인 당뇨 유병률은 7.7%(6.9%)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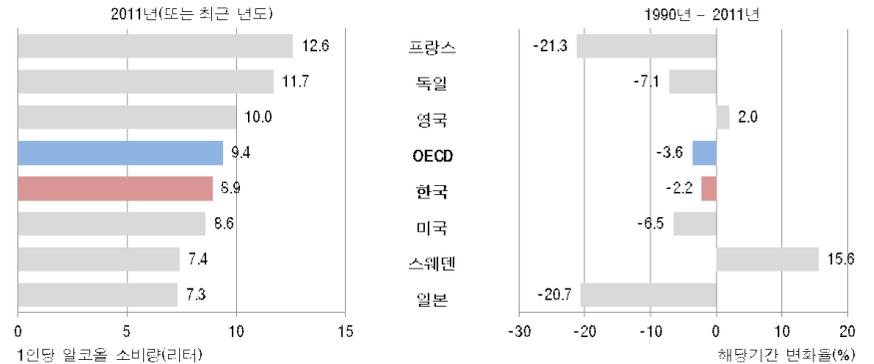
* 성인 당뇨 유병률 : 미국 9.6%, 독일 5.5%, 영국 5.4%, 스웨덴 4.4%

* 1형 당뇨병 :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

- (음주·흡연 등) 주류 소비량, 비만 및 과체중 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흡연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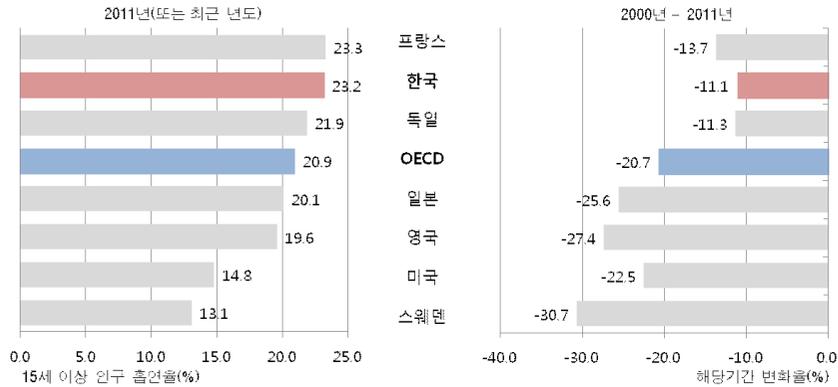
-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8.9리터(9.4리터)이나, 1990~2011년 연간 주류소비량 감소율은 2.2%(3.6%)로 낮고,

< OECD 주요국의 주류소비량 >



- 성인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은 4.3%(17.6%)이며,
- 15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은 23.2%(20.9%)로 절주·금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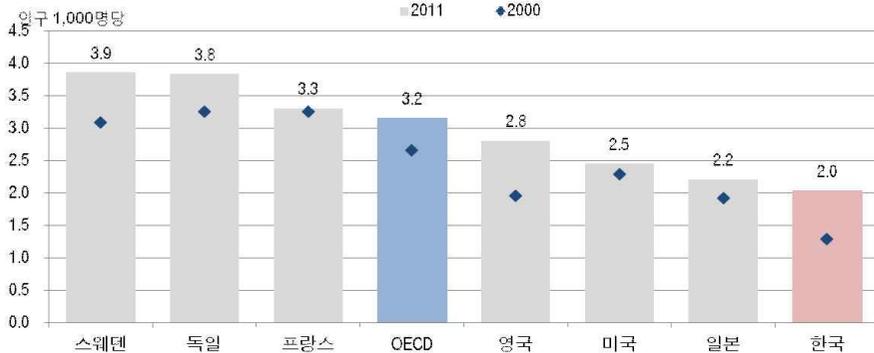
< OECD 주요국의 흡연율 >



□ (보건의료 자원) 활동 의사 수, 활동 간호사 수,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보다 적고, 총 병상 수는 OECD 평균보다 많게 나타났다.

- 활동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0명(3.2명),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십만 명당 8.0명(10.6명)으로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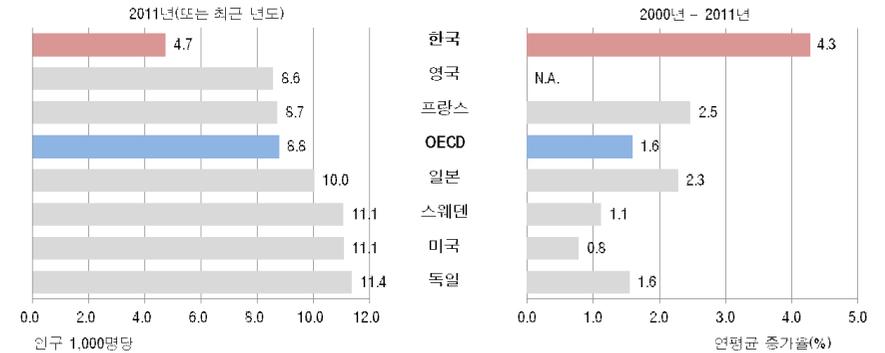
< OECD 주요국의 활동 의사 수 >



* 2000년 대비 2011년 한국의 활동 의사 수는 56.9% 증가하였으며, 영국(43.4%), 스웨덴(24.9%), 독일(17.8%), 일본(14.5%), 미국(7.4%), 프랑스(1.5%)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동 의사 수가 증가하여, OECD 평균 18.4%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활동 간호사 수는 인구 천 명당 4.7명(8.8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다. 반면, 2000년 대비 증가율은 연평균 4.3%(1.6%)로 높다.

< OECD 주요국의 활동 간호사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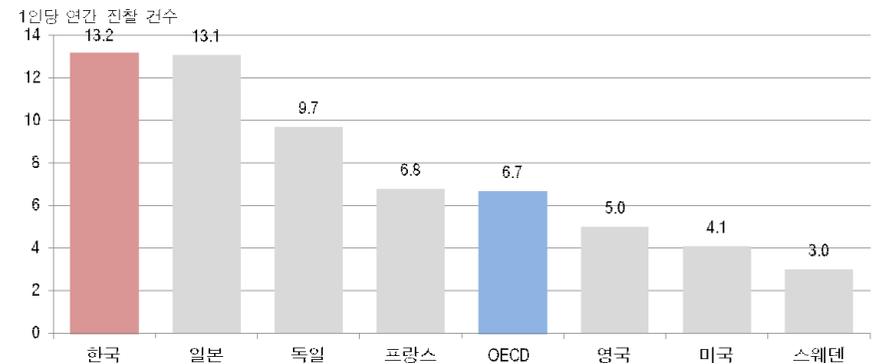


- 총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9.6병상(5.0병상)으로 회원국 중 일본(13.4병상)에 이어 두 번째로 병상수가 많다.

□ (보건의료 이용) 의사 진찰건수, 평균 재원일 수, MRI와 CT 스캐너 보유 대수가 OECD 평균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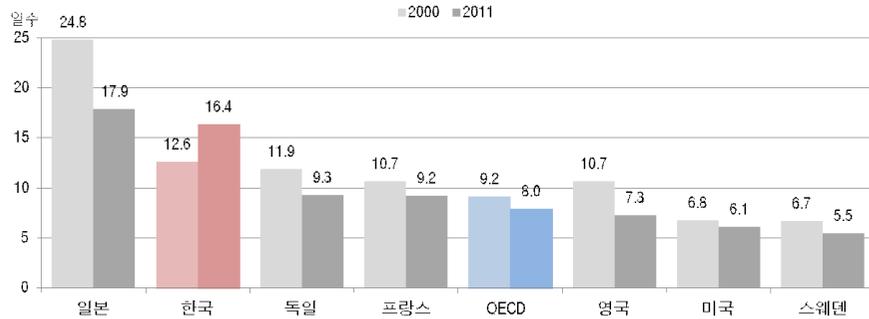
-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13.2회(6.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고,

< OECD 주요국의 의사진찰건수 >



- 환자 1인당 병원평균재원일수는 16.4일(8.0일)로 OECD 평균보다 길며, 정상 분만 평균 재원일 수는 2.6일(3.0일)로 OECD 평균보다 짧다.

< OECD 주요국의 평균재원일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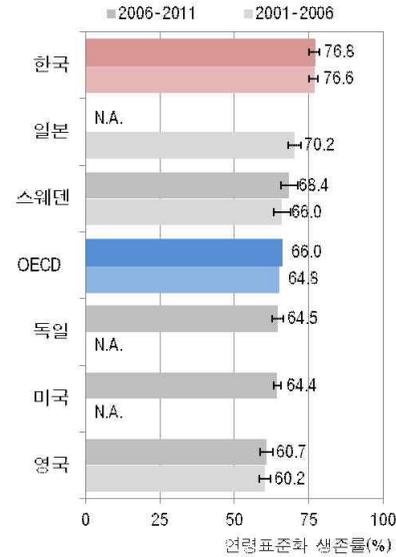


- 인구 백만 명당 MRI 보유 대수는 21.3대(13.3대), CT 스캐너 보유 대수는 35.9대(23.6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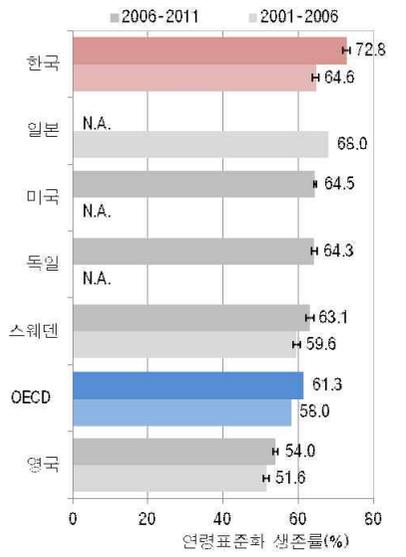
□ (보건의료 질)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은 76.8%(66.0%),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72.8%(61.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년 상대생존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5년 생존율과 비교한 해당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임(암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해당 암이 없는 일반인의 생존율과 동일한 것을 의미)

< OECD 주요국의 자궁경부암 상대생존률 >



< OECD 주요국의 대장암 상대생존률 >



* 95% 신뢰구간은 H로 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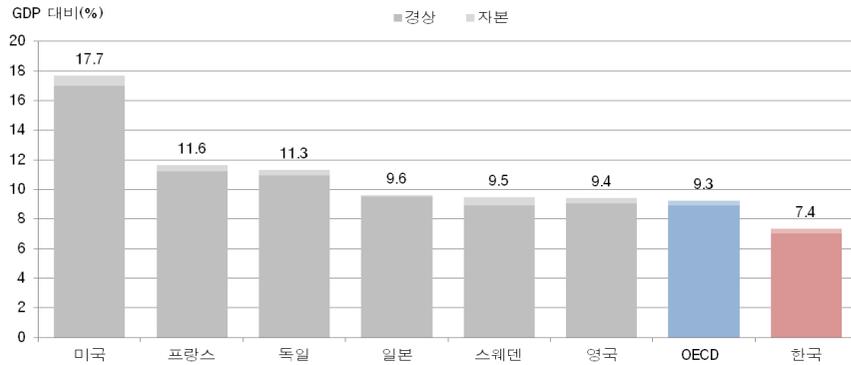
- 반면 조현병(정신분열병) 재입원율은 19.4%(12.9%)로 OECD 평균보다 높아 정신보건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

□ (보건의료 비용) 국민의료비는 91.2조원으로 GDP 대비 7.4%(9.3%)로 나타났다.

* ('00년) 26.1조원 → ('05년) 48.7조원 → ('08년) 67.6조원 → ('11년) 91.2조원

* 미국은 17.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 11.9%, 프랑스 11.6%

<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



*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한국에 비해 낮은 국가는 폴란드(6.9%), 룩셈부르크(6.6%), 멕시코(6.2%), 터키(6.1%), 에스토니아(5.9%) 등임.

○ 1인당 의료비지출은 PPP(구매력평가환율) 기준 2,198 USD(OECD 3,322 USD)로 OECD 평균보다 낮으나, 2000~2009년¹⁾의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4.1%)로, OECD 평균의 두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공적재원 지출은 49.3조원으로 경상의료비²⁾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72.4%)로 2000년 52.0%에 비해 4.6%p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 ('00년) 12.8조원 → ('05년) 25.5조원 → ('08년) 36.1조원 → ('11년) 49.3조원
 * 경상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50% 이하)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네덜란드임(85%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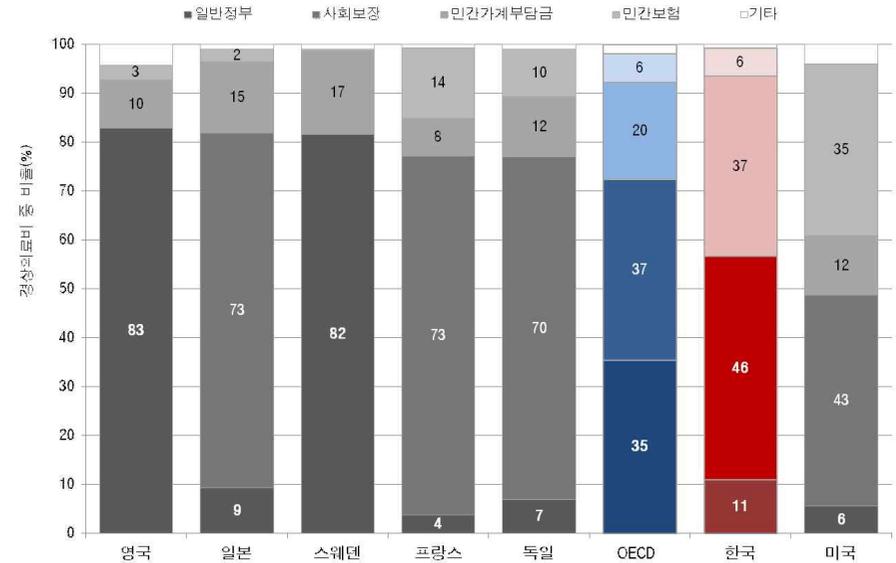
○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2.1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19.8%)로 2000년 41.8%에 비해 5.0%p 감소하였지만,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 ('00년) 10.3조원 → ('05년) 18.3조원 → ('08년) 24.0조원 → ('11년) 32.1조원

1) 2009~2011년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6.3%(OECD 0.2%)

2) 국민의료비(91.2조원)는 경상의료비(87.1조원)에 자본형성(병원 건립 등, 4.1조원)을 더한 것으로 OECD는 경상의료비가 지출수준을 비교·평가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

< OECD 주요국의 재원별 국민의료비 구성비 >



○ 또한,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관련 투자는 2.7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2008년 2.6%에 비해 증가하였고,

- 의약품 등³⁾의 지출은 18.4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2008년 22.5%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2008년 14.3조원에 비해 28.7% 증가하였다.

* 예방 등 : ('00년) 0.5조원 → ('05년) 0.9조원 → ('08년) 1.7조원 → ('11년) 2.7조원

* 의약품 등 : ('00년) 5.2조원 → ('05년) 10.9조원 → ('08년) 14.3조원 → ('11년) 18.4조원

○ 향후의 국민의료비는 2012년 96조원, 2013년 101조원으로 추계되어 곧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가 예상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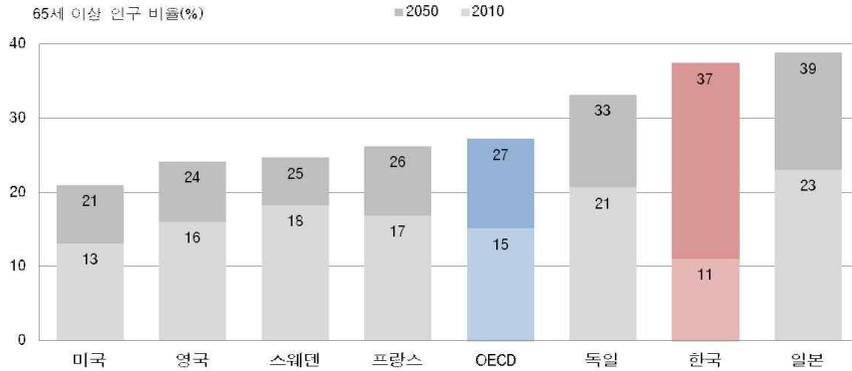
-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현재의 의료비 증가가 계속되면 2020년에는 국민의료비 200조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3) 원외처방 의약품 및 기타 의료 소모품(원내처방은 제외)에 대한 지출을 말함.

4)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추계(경형선)

□ (고령화 및 장기요양) 201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1%(15%)이나, 2050년 65세 이상 인구 추계비율은 37%(27%)로 예측된다.

< OECD 주요국의 65세 이상 비율 >



○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수는 46.1병상(49.1병상)으로 OECD 평균보다 적으나, 지난 10년간 장기요양 관련 시설 및 지출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

*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장기요양 병상 수 : 스웨덴 73.4, 독일 52.1, 영국 51.7, 미국 40.9, 일본 36.7

-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장기요양 병상수 연평균 증가율은 26.3%, 병원 내 장기요양 병상수 연평균 증가율은 41.6%이고,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GDP대비 공공 장기요양 지출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도 43.9%로 나타나 급증하는 장기요양병상이 과잉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장·단기 수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다른 OECD 국가에서는 50세 이상 인구의 15% 이상이 가족 등에 대한 요양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우리나라도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필요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희망을 키우고 건강을 지켜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강화하여,

-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를 구비하여 정책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 생산된 통계는 낱알이 공개·공유하여 정부의 투명한 운영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붙임> 1. OECD 보건통계 개요
 2. 2011년 기준 국민의료비 현황
 3. "Health at a Glance 2013" 수록 한국 지표 및 수치

참고 1 OECD 보건통계 개요

□ OECD 요구통계

- OECD로부터 매년 보건통계 자료요구에 의해 주요통계는 연구용역 및 기관위임으로 생산·제공하고 있으며, 각국의 OECD 발표통계는 회원국이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OECD에서 수집 제공하는 보건통계는 매년 경제사회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통계를 추가하고 필요도가 낮아진 통계를 제외하여 요구 항목을 조절하고 있음
- 최근에는 통계생산 효율화를 위하여 OECD와 WHO, EU 등이 공동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활용하는 추세

□ '13년도 OECD 제공현황

- 우리나라의 통계 제공수준은 대체적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

* 한국의 보건통계는 '96.12월 OECD 가입 이후 매년 제출

구분	'13년도 제공현황			비고
	요구항목수	제출항목수	제출률	
합 계	921	772	83.8%	
일반보건 통계	765	653	85.4%	매년 제공
국민의료비 통계	96	89	92.7%	
보건의료 질 통계	60	30	50.0%	매홀수년 제공

□ OECD 발표 통계

○ 「OECD Health Data」

- 회원국의 전반적 보건현황을 매년 제공받아 사무국이 작성 가이드 라인 준수여부 등의 검토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홈페이지를 통해 Health Data 발표('13년은 6.27일 발표)
-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의료비용, 건강의 비의료적 결정요인, 의약품 판매액 및 소비량 등의 회원국별 비교 통계 수록
- OECD Health Data는 회원국과 국제기관의 관계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임
- OECD 창립 이후 50년 동안 회원국의 보건의료 및 그 제도의 진화를 비교해볼 수 있는 정보의 원천임
- * OECD Health Data는 인지도와 객관성, 활용도가 높아 검색(접속)률이 OECD 통계 중 가장 높음.

○ 「OECD Health at a Glance」

- 회원국의 전반적 보건현황을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여 2001년을 시작으로 매 2년 책자발간 및 보도자료 배포
- 'Health at a Glance'는 보건통계(Health Data), 보건비용(Health Expenditure), 의료의 질(Quality of Care) 등을 통하여 수집된 통계 가운데 주요 항목을 선정하여 34개 회원국과 그 외 핵심부상국 6개국 등 4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보고서임
- * 8개 Chapter : ①건강상태, ②건강의 비의료적 결정요인, ③보건의료 인력, ④보건의료 활동, ⑤보건의료 질, ⑥진료 접근성, ⑦보건의료비와 자원조달, ⑧고령화와 장기요양

참고 2 2011년 기준 국민의료비(Total health expenditure)

□ 개요

- OECD는 한 나라의 의료비 총량 규모를 파악하고 각국의 의료비 지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의료비 통계 DB를 구축('80~)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연구하여 OECD에 제출

- 국민전체가 1년간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로 지출한 총액으로,

- 재원별, 공급자별, 기능별 지출규모 파악

* 의료서비스 및 재화, 공중보건 및 예방프로그램, 그리고 행정에 대한 공공 재원 및 민간재원(가구포함) 지출 포함. 다만, 교육훈련, 연구 및 환경보건과 같은 보건관련지출(health-related expenditure)은 제외

□ 구성

$$\text{국민의료비} = \text{경상의료비(개인의료비 + 집합보건의료비)} + \text{자본형성}$$

○ 개인의료비

-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내지 재화에 대한 지출

○ 집합보건의료비

-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등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관련 지출

○ 자본형성

- 병원, 보건소 등의 건설 또는 증축, 대형장비의 구입 등

□ 2011년 기준 국민의료비 : 91.2조원

- 전년대비 5.7조원 증가하여 GDP 대비 7.4%(OECD 평균은 9.3%)
 - 공공재원지출은 50.4조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55.3% 차지 (OECD 평균 72.2%)
 - 민간재원지출은 40.7조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44.7% 차지

<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규모 및 GDP대비 비율 >

구분		'80	'85	'90	'95	'00	'05	'10	'11	
국민 의료비 (조원)	계 (A)	1.4	3.0	7.4	15.3	26.1	48.7	85.5	91.2 (100%)	
	경상 의료비	소계	1.3	2.8	7.1	14.3	24.6	46.0	81.3	87.1 (95.5%)
		개인의료비	1.2	2.6	6.6	13.3	22.8	43.2	75.6	81.2 (89.1%)
		집합보건 의료비	0.1	0.2	0.5	1.0	1.9	2.8	5.7	5.9 (6.5%)
	자본형성	0.1	0.2	0.3	1.0	1.5	2.6	4.2	4.1 (4.5%)	
전년대비 증가율(%)		34.1	12.7	20.6	14.5	11.2	12.9	13.1	6.6	
GDP(조원) (B)		39.1	85.7	191.4	409.7	603.2	865.2	1173.3	1235.2	
GDP 대비비율(%) (A)/(B)×100		3.6	3.5	3.9	3.7	4.3	5.6	7.3	7.4	

- 1인당 국민의료비는 1,831천원(2,198US\$ppp)으로, 전년대비 5.8% 상승(OECD 평균 3,322US\$ppp)
- 가계직접부담 비용은 32.1조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35.2% 차지 (OECD 평균 19.4%)
- 의약품(소모품 포함) 지출비는 18,4조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20.2% 차지(OECD 평균 16.4%)

OECD국가의 국민의료비 규모(2011년)

국가	1인당국민의료비 (US\$PPP)	GDP대비 비율 (%)	공공재원비율 (%)	가계직접 부담비율(%)	의약품 등 비율 (%)
호주	(‘10)3,800 (13위)	(‘10)8.9 (21위)	(‘10)67.8 (24위)	(‘10)19.3 (14위)	(‘10)15.4 (18위)
오스트리아	4,546 (5위)	10.8 (8위)	76.2 (15위)	17.0 [*] (20위)	11.7 (24위)
벨기에	4,061 (11위)	10.5 (9위)	75.9 (16위)	19.7 (13위)	15.5 (17위)
캐나다	4,522 (6위)	11.2 (5위)	70.4 (22위)	14.7 (24위)	16.6 (14위)
칠레	1,568 (30위)	7.5 (27위)	46.9 (34위)	36.9 (2위)	12.6 (22위)
체코	1,966 (27위)	7.5 (28위)	84.2 (4위)	14.7 (23위)	20.0 (9위)
덴마크	4,448 (8위)	10.9 (7위)	85.3 (2위)	12.8 (27위)	6.8 (32위)
에스토니아	1,303 (32위)	5.9 (34위)	79.3 (11위)	17.6 (19위)	21.5 (6위)
핀란드	3,374 (16위)	9.0 (20위)	75.4 (17위)	18.6 (15위)	13.2 (21위)
프랑스	4,118 (10위)	11.6 (3위)	76.8 (13위)	7.5 (33위)	15.6 (16위)
독일	4,495 (7위)	11.3 (4위)	76.5 (14위)	13.2 (26위)	14.1 (20위)
그리스	2,361 (24위)	9.1 (18위)	65.1 (26위)	30.5 (4위)	28.5 (2위)
헝가리	1,689 (29위)	7.9 (25위)	65.0 (27위)	26.0 (6위)	33.4 (1위)
아이슬란드	3,305 (17위)	9.0 (19위)	80.4 (10위)	18.2 (16위)	15.4 (19위)
아일랜드	3,700 (14위)	8.9 (22위)	67.0 (25위)	18.1 (17위)	17.5 (12위)
이스라엘	2,239 (25위)	7.7 (26위)	60.8 (30위)	26.0 (7위)	-
이탈리아	3,012 (21위)	9.2 (17위)	77.8 (12위)	18.0 (18위)	16.2 (15위)
일본	(‘10)3,213 (18위)	(‘10)9.6 (12위)	(‘10)82.1 (8위)	(‘10)14.4 (25위)	(‘10)20.3 (7위)
한국	2,198 (26위)	7.4 (29위)	55.3 (31위)	35.2 (3위)	20.2 (8위)
룩셈부르크	4,246 (9위)	6.6 (31위)	84.1 (5위)	11.5 (30위)	8.4 (30위)
멕시코	(‘10)977 (33위)	(‘10)6.2 (32위)	(‘10)47.3 (33위)	(‘10)49.0 (1위)	(‘09)27.1 (4위)
네덜란드	5,099 (4위)	11.9 (2위)	85.6 [*] (1위)	6.0 [*] (34위)	9.4 (28위)
뉴질랜드	3,182 (19위)	10.3 (10위)	82.7 (7위)	10.9 (31위)	9.4 (29위)
노르웨이	5,669 (2위)	9.3 (16위)	84.9 (3위)	(‘10)15.0 [*] (22위)	6.8 (31위)
폴란드	1,452 (31위)	6.9 (30위)	70.3 (23위)	22.3 (10위)	22.5 (5위)
포르투갈	2,619 (22위)	10.2 (11위)	65.0 (28위)	27.3 (5위)	17.9 (11위)
슬로바키아	1,915 (28위)	7.9 (24위)	70.9 (21위)	22.6 (9위)	27.4 (3위)
슬로베니아	2,421 (23위)	8.9 (23위)	73.7 (18위)	11.8 (28위)	19.5 (10위)
스페인	3,072 (20위)	9.3 (15위)	73.0 (19위)	20.7 (12위)	17.4 (13위)
스웨덴	3,925 (12위)	9.5 (13위)	81.6 (9위)	16.2 (21위)	12.1 (23위)
스위스	5,643 (3위)	11.0 (6위)	64.9 (29위)	25.8 (8위)	9.4 (27위)
터키	(‘08)906 (34위)	(‘08)6.1 (33위)	(‘08)73.0 (20위)	(‘07)21.8 (11위)	-
영국	3,405 (15위)	9.4 (14위)	82.8 (6위)	9.9 (32위)	(‘08)11.4 (26위)
미국	8,508 (1위)	17.7 (1위)	47.8 (32위)	11.6 (29위)	11.7 (25위)
평균	3,322	9.3	72.2	19.4	16.4

* 경상의료비 기준

※ 순위는 수치가 큰 값을 기준으로 부여함, 출처: OECD Health data 2013('13. 11월 현재)

참고 3

“Health at a Glance 2013” 수록 한국 지표 및 수치

- *1) “Health at a Glance 2013” 수록 지표 등 더 자세한 정보는 www.oecd.org/health/healthataglance에서 링크 가능하나 참고 3은 동 발간물에 수록된 한국 지표와 수치를 발췌하여 작성한 것임.
- *2) “Health at a Glance 2013” 발간물에 평균이 수록되지 않은 경우 ‘-’로 표시함.
- *3) 기준년도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최근 자료를 나타냄

분야	지표명	기준 년도	한국	OECD 평균	영국	미국	일본
1. 건강상태	출생시 기대수명(년, 전체)	2011	81.1	80.1	81.1	78.7	82.7
	출생시 기대수명(년, 여성)	2011	84.5	82.8	83.1	81.1	85.9
	출생시 기대수명(년, 남성)	2011	77.7	77.3	79.1	76.3	79.4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명)	2011	42.3	122.2	112.9	126.5	39.0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변화율(인구 10만명당, %)	1990-2011	59.6	-41.5	-62.0	-50.3	-31.8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명)	2011	79.7	69.1	67.6	43.3	60.6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변화율(인구 10만명당, %)	1990-2011	-54.4	-50.6	-50.7	-43.1	-56.4
	암에 의한 사망률, 여성(인구 10만명당, 명)	2011	119.9	165.8	192.1	162.9	129.0
	암에 의한 사망률, 남성(인구 10만명당, 명)	2011	290.0	277.7	275.2	238.0	263.2
	암에 의한 사망 변화율(인구 10만명당, %)	1990-2011	6.0	-14.4	-19.4	-22.6	-11.5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명)	2011	13.8	7.6	3.6	12.4	4.5
	자살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명)	2011	33.3	12.4	6.7	12.5	20.9
	영아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명)	2011	3.0	4.1	4.3	6.1	2.3
	저체중아(2,500그램 미만 신생아, %)	2011	5.2	6.8	7.0	8.1	9.6
	저체중아 변화율(신생아 2,500그램 미만, %)	1990-2011	100.0	21.7	4.5	12.5	52.4
	본인이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	2011	36.8	69.0	77.5	89.5	30.0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비율(%), 여성	2011	33.5	66.6	76.5	88.9	28.6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비율(%), 남성	2011	40.2	71.5	78.5	90.2	31.5
	소득수준에 따른 인지하는 건강상태(낮은 임금 수준, %)	2011	30.5	61.3	69.3	74.3	23.6
	소득수준에 따른 인지하는 건강상태(높은 임금 수준, %)	2011	43.6	79.8	88.4	95.8	34.5
당뇨 유병률(성인 20-79세, %)	2011	7.7	6.9	5.4	9.6	-	
0-14세 아동의 1형 당뇨병 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	2011	1.1	17.2	24.5	23.7	-	
아동 비만 및 과체중 비율(측정, %), 여아	2011	20	21	26	30	17	
아동 비만 및 과체중 비율(측정, %), 남아	2011	25	23	22	30	23	
성인 매일흡연율(15세이상, %)	2011	23.2	20.9	19.6	14.8	20.1	
성인 매일흡연 변화율(%)	2000-2011	-11	-21	-27	-23	-26	
성인 매일흡연율, 여성(15세이상, %)	2011	5.1	16.6	19.1	13.3	9.7	
성인 매일흡연율, 남성(15세이상, %)	2011	41.6	25.8	20.3	16.4	32.4	
성인 1인당 주류 소비량(15세이상, 순수알코올 리터)	2011	8.9	9.4	10.0	8.6	7.3	
성인 주류 소비량 변화율(%)	1990-	-2.2	-3.6	2.0	-6.5	-20.7	

2. 의료접
건강 결정
요인

분야	지표명	기준 년도	한국	OECD 평균	영국	미국	일본
3. 보건의료 인력	성인비만율(성인인구 중 비율, %)	2011	4.3	17.6	24.8	36.5	4.1
	성인 매일 과일 섭취 비율(여성, %)	2011	66	69	76	52	-
	성인 매일 과일 섭취 비율(남성, %)	2011	50	57	70	39	-
	성인 매일 채소 소비 비율(여성, %)	2011	99	73	76	82	-
	성인 매일 채소 소비 비율(남성, %)	2011	99	64	70	74	-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명)	2011	2.0	3.2	2.8	2.5	2.2
	55세 이상 의사 비율 (전체 의사 수 대비, %)	2011	14	32	13	34	32
	여성 의사 비율 (전체 의사 수 대비, %)	2011	21	44	45	33	19
	일반의 비율 (전체 의사 수 대비, %)	2011	29	30	30	12	-
	전문의 비율 (전체 의사 수 대비, %)	2011	71	62	71	88	-
	산부인과 의사 수(여성 인구 10만명당, 명)	2011	22.6	27.3	23.8	26.5	15.6
	조산사 수(여성 인구 10만명당, 명)	2011	4.7	69.9	99.3	-	40.1
	조산사 수 연평균 변화율(여성 인구 10만명당, %)	2000-2011	-2.9	2.3	0.5	-	2.3
	정신과 의사 수(인구 10만명당, 명)	2011	6.6	15.6	19.5	14.1	11.1
	정신건강 간호사 수(인구 10만명당, 명)	2011	14	50	81	-	106
의대 신규 졸업자 수(인구 10만명당, 명)	2011	8.0	10.6	11.7	6.6	6.0	
의대 신규 졸업자 수(의사 1,000명당, 명)	2011	39.4	33.7	41.7	26.7	26.9	
활동 간호사수(인구 1,000명당, 명)	2011	4.7	8.8	8.6	11.1	10.0	
활동 간호사수 연평균 변화율(인구 1,000명당, %)	2000-2011	4.3	1.6	-	0.8	2.3	
의사수 대비 간호사 수(명)	2011	2.3	2.8	3.1	4.3	4.5	
간호교육 신규 이수자(인구 10만명당, 명)	2011	94.9	42.9	35.0	-	38.7	
간호교육 신규 이수자(간호사 1,000명당, 명)	2011	200.9	53.7	40.8	-	37.9	
4. 보건의료 활동	인구 1인당 연간 의사 진찰건수(건)	2011	13.2	6.7	5.0	4.1	13.1
	의사 1인당 연간 진찰건수(건)	2011	6482	2385	1847	1678	5916
	MRI 보유대수(인구 100만명당, 대수)	2011	21.3	13.3	5.9	31.5	-
	CT 스캐너 보유대수(인구 100만명당, 대수)	2011	35.9	23.6	8.9	40.9	101.3
	MRI 검사 건수(인구 1,000명당, 건수)	2011	18.2	55.4	41.4	102.7	-
	CT 스캐너 검사 건수(인구 1,000명당, 건수)	2011	118.5	131.0	77.5	273.8	-
	총 병원 병상수(인구 1,000명당, 병상)	2011	9.6	5.0	2.95	3.05	13.40
	병원 퇴원수(인구 1,000명당)	2011	147	156	136	125	111
	순환계 질환의 병원 퇴원수(인구 1,000명당)	2011	10.9	19.6	13.0	18.2	13.8
	암질환의 병원 퇴원수(인구 1,000명당)	2011	16.4	13.4	9.1	5.1	22.2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 일수(일)	2011	16.4	8.0	7.3	6.1	17.9
	정상 분만의 평균 병원 재원 일수(일)	2011	2.6	3.0	1.6	2.0	-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균 병원 재원 일수(일)	2011	11.6	6.9	7.7	5.4	-
	고관절 치환술(인구 10만명당, 횟수)	2011	17	160	181	204	-
	무릎 치환술(인구 10만명당, 횟수)	2011	108	119	143	226	-
	출생아 100명당 제왕절개 건수	2011	34.6	26.9	24.1	31.4	-
	외래환자 백내장 수술 비율(총 수술건 중 비율)	2011	90.0	85.6	98.2	-	-
	고혈압 치료제 소비량(인구 1,000명당, 1일, DDD)	2011	148	339	374	-	-
	콜레스테롤저하제 소비량(인구 1,000명당, 1일, DDD)	2011	34	91	130	-	-

분야	지표명	기준 년도	한국	OECD 평균	영국	미국	일본
5. 보건의료 질	당뇨병 치료제 소비량(인구 1,000명당, 1일, DDD)	2011	62	60	78	-	-
	항우울제 소비량(인구 1,000명당, 1일, DDD)	2011	13	56	71	-	-
	인구 10만명당 천식으로 입원한 환자수(명)	2011	103	46	61	117	35
	인구 10만명당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수(명)	2011	220	203	227	226	24
	인구 10만명당 당뇨병으로 입원한 환자수(명)	2011	350	164	72	201	-
	항생제권장사용량을 처방받은 인구수(DDD/1000명/일)	2010	27.9	20.5	18.7	24.9	-
	45세 이상 급성심근경색 입원환자 중 입원 후 30일 내 동일한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비율(%, 입원 단위)	2011	8.9	7.9	7.8	5.5	12.2
	45세 이상 급성심근경색 입원환자 중 입원 후 30일 내 사망한 환자의 비율(%, 환자 단위)	2011	11.2	10.8	10.0	-	-
	45세 이상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 중 입원 후 30일 내 동일한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비율(%, 입원 단위)	2011	3.4	8.5	10.4	4.3	3.0
	45세 이상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 중 입원 후 30일 내 사망한 환자의 비율(%, 환자 단위)	2011	5.4	11.2	12.4	-	-
	조현병 입원환자가 퇴원 후 동일 병원으로 계획되지 않게 재입원한 비율(%)	2011	19.4	12.9	11.0	-	-
	양극성정동장애 입원환자가 퇴원 후 동일 병원으로 계획되지 않게 재입원한 비율(%)	2011	10.4	11.4	11.3	-	-
	일반인구집단 사망률 대비 조현병 환자의 사망률의 비	2011	3.6	-	-	-	-
	일반인구집단 사망률 대비 양극성정동장애 환자의 사망률의 비	2011	3.1	-	-	-	-
	20-69세 여성 중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비율(%)	2011	48.4	59.6	68.5	85.0	37.7
	일반인구집단 대비 자궁경부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률(%)	2006-2011	76.8	66.0	60.7	64.4	-
	일반인구집단 대비 자궁경부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률(%)	2001-2006	76.6	64.8	60.2	-	70.2
	여성 인구 10만명당 자궁경부암 사망자수(명)	2011	4.2	3.7	2.7	2.4	3.2
	50-69세 여성 중 유방촬영 검진을 받은 비율(%)	2011	58.9	61.5	72.6	80.4	36.4
	일반인구집단 대비 유방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률(%)	2006-2011	85.2	84.2	80.7	89.3	-
일반인구집단 대비 유방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률(%)	2001-2006	82.6	82.6	78.6	-	87.3	
여성 인구 10만명당 유방암 사망자수(명)	2011	7.8	26.3	30.4	24.5	14.2	
일반인구집단 대비 대장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률, 전체(%)	2006-2011	72.8	61.3	54.0	64.5	-	
일반인구집단 대비 대장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률, 여(%)	2006-2011	71.2	63.3	55.0	64.8	66.9	

분야	지표명	기준 년도	한국	OECD 평균	영국	미국	일본
	일반인구집단 대비 대장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률, 남(%)	2006-2011	74.3	61.3	53.2	64.4	69.2
	일반인구집단 대비 대장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률, 전체(%)	2001-2006	64.6	58.0	51.6	-	68.0
	인구 10만명당 대장암 사망자수 (명)	2011	20.9	25.0	22.9	17.6	23.6
	1세 소아 중 DT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 접종 비율 (%)	2011	99	96	95	95	98
	1세 소아 중 홍역 예방접종 비율 (%)	2011	99	94	90	92	94
	1세 소아 중 B형 간염 예방 접종 비율 (%)	2011	99	93	-	92	-
	65세 이상 인구 중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2011	80	50	74	67	53
6. 진료접근성	핵심 서비스에 대한 건강 보험 보장, 전체 인구 대비 비율(%)	2011	100	-	100	84.9	100
	유형별 민간 건강보험 보장, 전체 인구 대비 비율(%)	2011	51.1	-	-	60.6	-
	최종 가구 소비에서 본인부담금의 비중(%)	2011	4.6	2.9	1.5	2.9	2.2
	본인부담 의료지출 중 서비스 및 상품 별 비율, 급성진료	2011	48.2	32.0	-	-	39.4
	본인부담 의료지출 중 서비스 및 상품 별 비율, 치과	2011	20.5	18.8	-	-	9.8
	본인부담 의료지출 중 서비스 및 상품 별 비율, 의약품	2011	24.2	36.6	-	-	43.1
	본인부담 의료지출 중 서비스 및 상품 별 비율, 치료기구	2011	5.8	12.0	-	-	7.7
	본인부담 의료지출 중 서비스 및 상품 별 비율, 기타	2011	1.3	0.6	-	-	0.0
	도시의 의사 밀도(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11	2.2	-	-	-	2.2
	시골의 의사 밀도(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11	1.7	-	-	-	2.1
	본인부담 치과 진료비(총 치과 진료비 중 비율, %)	2011	84	55	-	42	24
	1인당 국민의료비 (US\$ PPP)	2011	2198	3322	3405	8508	3213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	2009-2011	6.3	0.2	-1.8	1.3	4.9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	2000-2009	9.3	4.1	5.3	3.4	2.8	
GDP대비 국민의료비 (%)	2011	7.4	9.3	9.4	17.7	9.6	
입원의료비가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1	25	29	-	18	32	
외래의료비가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1	33	33	-	51	33	
장기요양의료비가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1	12	12	-	6	9	
의료재화 비용이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1	23	20	-	14	22	
집합적서비스 비용이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1	7	6	-	11	5	
1인당 약제비 (US\$ PPP)	2011	445	483	-	985	648	
GDP 대비 약제비 비율(%)	2011	1.5	1.5	-	2.1	1.9	
1인당 약제비 연평균 증가율(%)	2009-2011	5.2	-0.9	-	-0.5	2.6	
1인당 약제비 연평균 증가율(%)	2000-2009	9.8	3.5	-	4.3	4.2	

분야	지표명	기준 년도	한국	OECD 평균	영국	미국	일본
	순환기계 질환 의료비가 병원입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9	13	-	-	-	22
	암질환 의료비가 병원입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9	19	-	-	-	17
	부상, 중독 및 외부적 요인 의료비가 병원입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9	15	-	-	-	9
	정신질환 및 행동질환 의료비가 병원입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9	7	-	-	-	10
	근골격계 질환 의료비가 병원입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9	9	-	-	-	6
	소화기계 질환 의료비가 병원입원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9	7	-	-	-	6
	순환기계 질환의 평균 퇴원당 의료비(US\$ PPP)	2009	5302	-	-	-	16087
	암질환의 평균 퇴원당 의료비(US\$ PPP)	2009	5681	-	-	-	7412
	65세 이상 인구의 병원입원 의료비 비중(%)	2011	34	-	-	-	64
	경상의료비 중에서 일반정부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2011	11	35	83 (총의료비 중)	6	9
	경상의료비 중에서 사회보장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2011	46	37	0 (총의료비 중)	43	73
	경상의료비 중에서 가계직접부담이 차지하는 비중(%)	2011	37	20	10 (총의료비 중)	12	15
	경상의료비 중에서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2011	6	6	3 (총의료비 중)	35	2
	경상의료비 중에서 민간비영리단체와 기업의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	2011	0	1	4 (총의료비 중)	4	1
	의료서비스 지출 중 공공재원의 비중(%)	2011	55	78	-	50	87
	의료재화 지출 중 공공재원의 비중(%)	2011	56	54	-	32	67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의 증감율(%)	2000-2011	-4.2	-1.2	-1.2	-3.3	-0.9
	경상의료비 대비 내국인의 해외 의료비 비율(%)	2011	0.17	-	0.08	0.04	-
	경상의료비 대비 내국인의 해외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	2006-2011	2.4	-	6.2	12.1	-
	경상의료비 대비 외국인환자 의료비의 비중(%)	2011	0.19	-	0.13	0.12	-
경상의료비 대비 외국인환자 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	2006-2011	19.0	-	10.8	4.4	-	
201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10	11	15	16	13	23	
2050년 추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50	37	27	24	21	39	
2010년 80세 이상 인구 비율(%)	2010	2	4	4	4	6	
2050년 추계 80세 이상 인구 비율(%)	2050	14	10	10	8	16	
65세 기대여명, 여성(년)	2011	21.9	20.9	21.2	20.4	23.7	
65세 기대여명, 남성(년)	2011	17.4	17.6	18.6	17.8	18.7	
8. 고령화 및 장기요양	건강상태가 좋다고 보고한 65세 이상의 인구(65세 이상 인구 중 백분율, %)	2011	26.3	42.2	59.5	75.2	18.4
	건강상태가 좋다고 보고한 65세 이상의 인구, 여성(65세 이상 인구 중 백분율, %)	2011	22.3	39.5	58.8	74.7	17.0
	건강상태가 좋다고 보고한 65세 이상의	2011	31.9	45.6	60.2	75.7	20.1

분야	지표명	기준 년도	한국	OECD 평균	영국	미국	일본
	인구, 남성(65세 이상 인구 중 백분율, %)						
	60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60세 이상 인구 중 비중, %)	2009	4.2	5.5	6.1	6.2	6.1
	65세 이상 장기요양 이용자(65세 이상 인구 중 비중, %)	2011	6.4	12.7	-	6.4	12.8
	2011년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비율(장기요양 이용자 중 백분율, %)	2011	65.6	63.6	-	42.2	77.8
	2000년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비율(장기요양 이용자 중 백분율, %)	2000	50	58.0	-	39.1	71.4
	65세 이상 인구 대비 장기요양 종사자 비율(%), 재가	2011	2.2	3.2	-	2.3	4.0
	65세 이상 인구 대비 장기요양 종사자 비율(%), 시설	2011	0.9	3.6	-	9.6	1.5
	65세 이상 인구 대비 장기요양 종사자 비율(%), 시설 + 재가	2011	3.1	6.8	-	11.9	5.5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병원 및 시설의 장기요양병상 수	2011	46.1	49.1	51.7	40.9	36.7
	병원 및 시설의 장기요양 병상 추세, 시설, 연평균 증가율(%)	2000-2011	26.3	3.7	-	0.8	3.1
	병원 및 시설의 장기요양 병상 추세, 병원, 연평균 증가율(%)	2000-2011	41.6	-0.4	-	-0.8	2.4
	장기요양공공지출(GDP 대비,%)	2011	0.6	1.6	-	0.6	1.8
	장기요양 공공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실질, 전체	2005-2011	43.9	4.8	-	3.1	12.5
	장기요양 공공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실질, 시설	2005-2011	43.1	4.1	-	-	2.6
	장기요양 공공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실질, 재가	2005-2011	81.7	5.0	-	-	7.3